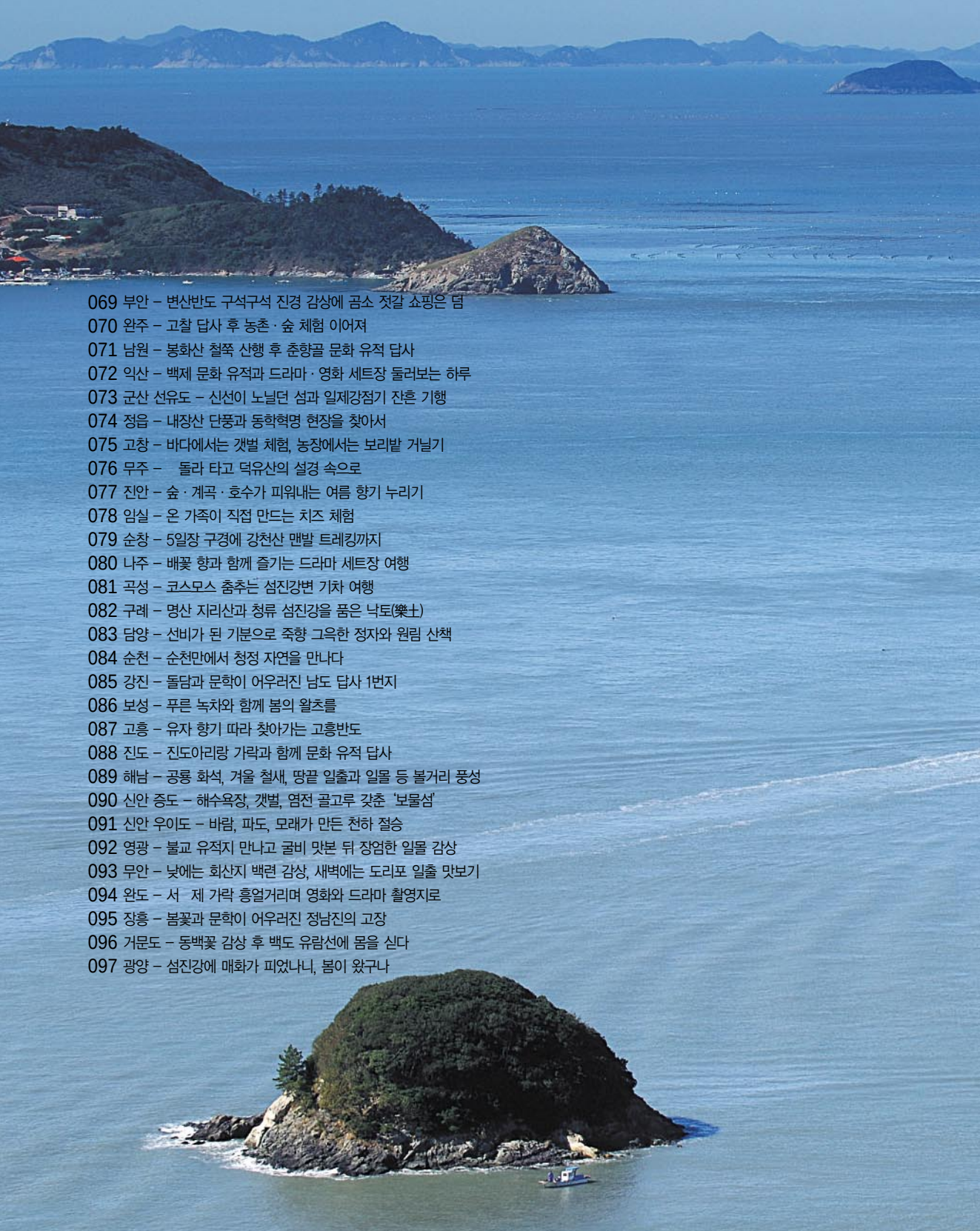


- 
- 069 부안 - 변산반도 구석구석 진경 감상에 곰소 갯길 쇼핑은 덤
070 완주 - 고찰 답사 후 농촌·숲 체험 이어져
071 남원 - 봉화산 절쪽 산행 후 춘향골 문화 유적 답사
072 익산 - 백제 문화 유적과 드라마·영화 세트장 둘러보는 하루
073 군산 선유도 - 신선이 노닐던 섬과 일제강점기 잔흔 기행
074 정읍 - 내장산 단풍과 동학혁명 현장을 찾아서
075 고창 - 바다에서는 갯벌 체험, 농장에서는 보리밭 거닐기
076 무주 - 돌라 타고 덕유산의 설경 속으로
077 진안 - 숲·계곡·호수가 피워내는 여름 향기 누리기
078 임실 - 온 가족이 직접 만드는 치즈 체험
079 순창 - 5일장 구경에 강천산 맨발 트레킹까지
080 나주 - 배꽃 향과 함께 즐기는 드라마 세트장 여행
081 곡성 - 코스모스 춤추는 섬진강변 기차 여행
082 구례 - 명산 지리산과 청류 섬진강을 품은 낙토(樂土)
083 담양 - 선비가 된 기분으로 죽향 그윽한 정자와 원림 산책
084 순천 - 순천만에서 청정 자연을 만나다
085 강진 - 돌담과 문학이 어우러진 남도 답사 1번지
086 보성 - 푸른 녹차와 함께 봄의 활초를
087 고흥 - 유자 향기 따라 찾아가는 고흥반도
088 진도 - 진도아리랑 가락과 함께 문화 유적 답사
089 해남 - 공룡 화석, 겨울 철새, 땅굴 일출과 일몰 등 볼거리 풍성
090 신안 증도 - 해수욕장, 갯벌, 염전 골고루 갖춘 '보물섬'
091 신안 우이도 - 바람, 파도, 모래가 만든 천하 절승
092 영광 - 불교 유적지 만나고 굴비 맛본 뒤 장엄한 일몰 감상
093 무안 - 낮에는 화산지 백련 감상, 새벽에는 도리포 일출 맛보기
094 완도 - 서 제 가락 흥얼거리며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095 장흥 - 봄꽃과 문학이 어우러진 정남진의 고장
096 거문도 - 동백꽃 감상 후 백도 유람선에 몸을 싣다
097 광양 - 섬진강에 매화가 피었나니, 봄이 왔구나

천라

을 파고, 주변에 꽃나무를 심어 그윽한 원림을 만들었다. 특히 연못에 비친 고풍스런 정자와 무성한 배롱나무 꽃송이는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한다. 입장료 · 주차료 무료.

❖ **소쇄원**(061-382-1071, www.soswaewon.org)은 우리나라 전통 조경의 백미로 꼽히는 곳으로, 조광조의 제자 양산보가 자연 속에서 숨어 살기 위해 꾸민 별서정원이다. 손님을 맞이하는 대봉대, 달맞이하기 좋은 제월당, 물소리가 듣기 좋은 광풍각이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조화롭게 배치되었다. 울창한 대나무 숲길을 걷는 맛이 그만이며, 특히 오색 단풍과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좋다. 문학 전공자, 조경가, 건축가 등 전문가들이 들르는 필수 코스다. 입장료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 **한국가사문학관**(061-380-3240)을 찾으면 당시 선비들의 생활상과 가사문학의 정수를 배울 수 있다. 가사의 이해와 역사, 송순의 《면앙집》, 정철의 《송강집》, 친필 유묵 등 귀중한 유물을 접할 수 있다. 관람료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그림자도 쉬어 간다는 **식영정**은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을 위해 지은 정자다.

❖ **한국대나무박물관**(061-380-3478, www.damyang.go.kr/new1/museum)은 500년 전통 담양 죽세공품의 혼을 배울 수 있는 박물관이다. 조선시대 죽세공품부터 현대 작품, 외국 제품에 이르기까지 2600여 점이 전시되며, 죽제품 판매장도 있다. 무형문화제전수관에서는 죽공예 기능인이 상주하며 죽물용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은 연필통, 주부들은 냄비받침을 만드는 체험을 한다. 관람료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 담양에서 순창 방면 24번 국도변에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있다. 영화 <화려한 휴가>의 촬영지로, 짙게 뻗은 가로수 터널을 지나면 시원한 숲속 동굴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다. 가로수 초입에 내려 걷는 것이 좋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건너편에는 천연기념물 제366호 **관방제림**이 담양천 제방 따라 2km나 이어진다. 200년 이상 된 팽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개서어나무 등 나무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수목을 자랑한다. 2004년 산림청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숲이다.

❖ 담양군 향교리의 **죽녹원**(061-380-3244)에 들어서면 청량한 대숲을 만날 수 있다. 16만5000m² 규모의 대숲에는 분죽, 왕대, 맹종죽이 자라고, 사랑이 번치 않는 길, 운수 대통 길 등 산책로 8개를 만들어놓았다. 입장료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 금성면에 자리한 대나무골 테마공원(061-383-9291, www.bamboopark.co.kr)도 죽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입장료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단체용 대형 방, 캠프장, 강당 보유.



1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2 전통 조경의 백미 소쇄원. 3 한국가사문학관. 4 한국대나무박물관.

대나무건강랜드 담양경찰서 뒤. 댓잎을 활용한 기능성 온천. 4950m² 규모의 대종탕, 가족온천탕, 사우나, 헬스장이 있다. 찜질방 포함시 6000원. ☎ 061-383-0001
한상근대통령집 월산면 허방리. 죽순회정식 1만원, 한우떡갈비 1만5000원. ☎ 061-382-1999

떡갈비 전문점 담양읍사무소 근처.
☎ 신식당 061-382-9901
☎ 덕인관 061-381-2194
성산산장 한국가사문학관 근처. 봉어찜 전문. 봉어찜 2만~3만원. ☎ 061-383-1045
들뜰 광주호 근처. 12가지 나물과 산채 요리

전문, 새싹정식 2인 3만원, 3인 이상 1인당 1만2000원. ☎ 061-381-7370

기타 정보

담양군청 www.damyang.go.kr
담양군청 문화관광과 ☎ 061-380-3150~4

순천

순천만에서 청정 자연을 만나다

프로그램 성격

- 순천만 갈대밭과 갯벌의 자연 생태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 가족이나 연인, 노인 등 모든 계층의 만족도가 높은 여행지.
- 갈대가 만발하는 10월이 적기.

여행 코스 : 호남고속도로 승주 IC - 22번 국도(승주 방면) - 857번 지방도(낙안읍성 방면) - 유천 삼거리 우회전 - **선암사** - 유천 삼거리(낙안 방면) - **낙안읍성** - 58번 지방도(순천 방면) - **낙안민속자연휴양림** - 58번 지방도(순천 청암대학 앞 우회전) - **순천만 갈대밭** · **용산 전망대** · **선상 투어**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전시관** - 17번 국도 - 서순천 IC

연계 코스 : 082(구례), 086(보성) 코스와 연계하여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이 가능하다.

장소별 소개 · 특징

조계산 기슭 동쪽에 자리 잡은 **선암사**(061-754-5247, www.seonamsa.co.kr)는 백제 아도화상이 비로암을 짓고, 신라 도선국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보물로 지정된 승선교를 꼭 볼 것. 사랑을 이루려는 청춘 남녀가 북

축제 · 행사 정보

낙안민속문화축제 매년 4월.

☎ 061-749-3347

팔마문화제 매년 10월. ☎ 061-749-3328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매년 10월.

☎ 061-754-9710

순천만 갈대축제 매년 10월.

☎ 061-749-3900 www.reeds.co.kr

숙박 · 식당 정보

낙안민속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1동 12

실, 숲속의 집 3동 3실, 아영장, 대나무숲길.

물놀이장을 갖췄다. ☎ 061-754-4400

로얄관광호텔 장천동. 숙박료 8만~13만원.

☎ 061-741-7000 www.royaltourist.co.kr

시티관광호텔 남내동. 숙박료 6만5000~12

만원. ☎ 061-753-4000

낙안읍성 내 민박

남문 ☎ 061-754-3498

은행나무집 ☎ 061-754-3032

진일가사식당 승주읍 신성리 선암사 가는 길.

백반 5000원. ☎ 061-754-5320

선암식당 선암사 상가. 조계산에서 자란 산나

물로 만든 산채 요리가 주 메뉴. 산채비빔밥

6000원, 산채정식 1만원. ☎ 061-754-5232

적이다. 무지개 모양의 승선교 아래의 용머리 전설이 재미있다. 선암사 측간(해우소)은 전남 문화재 자료 제214호로 아직도 사용되는 재래식 화장실이니 문화재에서 볼일 보는 영광을 놓치지 말 것. 입장료 어른 1500원, 어린이 600원.

➡ 순천시 낙안면에 자리한 **낙안읍성**(061-749-3347, www.nagan.or.kr)은 조선시대 성곽과 동헌, 객사, 임경업 군수비, 장터, 초가가 원형대로 보존된 마을이다. 남문 앞 도예방과 서문 쪽 서당, 길쌈 시연장, 짚풀 공예장 등에서 옛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매주 토·일요일은 한자서당이 운영되고, 오후 2~4시 동문에서 수문장 교대식과 퍼레이드가 있다(3회). 문화유산해설사의 무료 안내는 동문에서 출발. 월요일은 행사 없음. 입장료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주차료 없음. 매년 10월 중 열리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의 별미가 한자리에 모인 축제이므로 놓치지 마라.

➡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약 2km 지점에 위치한 **낙안민속자연휴양림**(061-754-4400, www.huyang.go.kr)은 순천의 명산인 금전산에 자리한다. 산책로와 삼림욕장 등 경관이 좋다.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어린이 300원. 주차료는 중·소형차 기준 1일 3000원. 낙안읍성마을에서 민박도 좋고, 휴양림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남도의 정취를 맛보기에 좋다.

➡ 순천시 대대동의 **순천만 갈대밭**의 총 면적은 231만㎡. 갈대와 칠면조 군락지, 갯벌 등 습습지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고 청정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겨울이면 흑두루미, 청둥오리, 마도요 등 철새가 날아든다. 해 질 녘 **웅산 전망대**에 오르면 황금 물결을 싣고 S자로 휘감아 흐르는 갈대밭 물길에 장관을 이룬다. 공원 입장료와 주차료 없음. 자연생태공원에서는 10월 중 순천만 갈대축제가 열린다. 갈대배 등이 전시되고 갈대 움집, 갈대 미로 찾기 등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 탐사선을 타고 순천만 수로를 따라가는 **선상 투어**(소요 시간 40분)는 갯벌과 갈대를 자세히 볼 수 있다. 선상투어 이용료는 어른 6000원, 어린이 4000원. 순천만 초입에 자리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전시관**(www.suncheonbay.go.kr)은 순천만의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생태 학습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입장료 어른 2000원, 어린이 500원. 월요일은 휴관.

★ **음선 코스 : 장산 갯벌 관찰장**(순천시청 관광진흥과 061-749-3006)

갯벌 진입 데크가 있어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짙뚱어와 게를 볼 수 있다.



1 순천만 탐사선과 노을 2 낙안읍성의 모습 3 순천만 갈대밭 4 순천만 탐사선 타는 대대포구 5 순천만 자연생태관

순천만가든 순천만 앞. 짙뚱어탕 6000원.

☎ 061-741-4489

순천만갈대회관 순천만 앞. 짙뚱어탕 7000원.

☎ 061-741-8431

동백식당 별량면사무소 앞. 짙뚱어탕 7000원.

☎ 061-742-8304

해돋이가는 별량 방향 사도 해변가에 있는 짙뚱어 소금구이 집 ☎ 061-742-8745

양지쌈밥 순천 시내 중심부. 고등어 쌈밥 5000원, 돼지고기쌈밥 6000원.

☎ 061-752-9936



기타 정보

순천시청 www.suncheon.go.kr

순천시청 관광진흥과 ☎ 061-749-3328

순천만닷컴 www.suncheonman.com

송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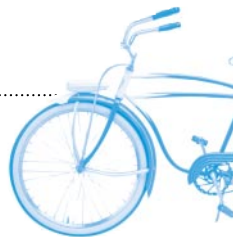
www.songgwangsa.org

순천만 선상투어

☎ 흑두루미호

016-599-1655

☎ 순천만1호 019-605-1914





강진

돌담과 문학이 어우러진 남도 답사 1번지

프로그램 성격

- 영랑 김윤식,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 강진 병영마을의 돌담과 유래, 병영성에 얽힌 사연을 짚어본다.
- 여행 시기는 사계절 어느 때라도 무방하다.

여행 코스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 - 2번 국도(강진 방면) - 강진군청 우회전 - **영랑생가** - 금서당 - 강진 세무서 - **사의재** - 18번 국도(호산 삼거리 좌회전) - **다산초당~오솔길~백련사** - 강진읍 - 829번 지방도(작천 방면) - 814번 지방도 우회전 - **전리병영성·병영마을·하멜 유적지** - 작천 - 814번 지방도(성전 방면) - 13번 국도(영암 방면) - **무위사** - **강진다원** - **월남사지** - 13번 국도(성전 방면) - 2번 국도 - 목포 IC

연계 코스 : 089(해남), 095(장흥) 코스와 연계하여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이 가능하다.

장소별 소개·특징

강진을 남성리에 있는 지방기념물 제89호 **영랑생가**는 영랑 김윤식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 문간채를 통과하면 우물, 장독대, 안채가 있으며 사랑채의 방 안에는 영랑의 모형이 있다. 생가 담장을 따라 올라가면 다섯

축제·행사 정보

강진청지문화제 매년 9~10월 개최.

☎ 061-430-3190 www.gangjinfes.or.kr

탐진강 은어축제 매년 8월 중순.

☎ 군동면사무소 061-430-5522

숙박·식당 정보

테마모텔 고려청자박물관에서 가까운 마랑항

에 있으며, 바다가 잘 보이는 숙소다.

☎ 061-432-2626

주작산자연휴양림 2007년 7월에 오픈. 원두막형 방갈로, 콘도형 산림휴양관이 있다. 숙박료 4만~12만원.

☎ 061-430-3306

백련사 만덕리 소재. 템플스테이 가능.

☎ 061-432-0837

강당가든 월남사지 초입에 25년간 옛돼지고기 요리를 해온 집. 민박 4만원.

☎ 061-433-1292 www.kangdang.co.kr

아미산모텔 도암면에 위치. 학교 자리에 지어 공기 좋은 곳. 숙박료 3만원.

☎ 061-433-2136

보금모텔 강진터미널 앞. 숙박료 3만원.

☎ 061-434-2836

살 된 영랑이 한문을 배우던 **금서당**이 있다. 현재 고 김영렬 화백의 부인이 화백의 그림을 전시·보관하고 있다. 전망 좋은 곳에서 차 한잔 음미할 수 있다. 강진읍 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입장료 없음.

❖ 동문샘 부근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되어 처음 머물던 공간. 갈 곳 없는 죄인에게 동문 밖 주막 노파가 방을 내주었다. 사의재는 생각, 용모, 언어, 동작 등 네 가지를 마땅하게 해야 할 방이라는 뜻이다. 주막으로 쓰던 건물과 다산이 머물던 방, 작은 연못과 우물이 있다. 강진세무서 옆에 위치. 입장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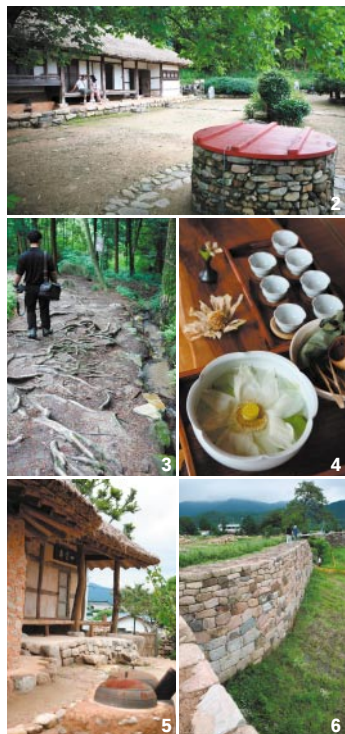
❖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18년 중 10여 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목민심서》《경세유표》《흙흙신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곳. 다산이 만든 연지석 가산이란 인공 연못이 있고, 흑산도로 유배 간 형을 그리던 천일각이 있다. 다산초당 입구의 다산유물전시관도 둘러볼 것. 주차장은 대형 버스 15대 수용 가능해서 수학여행 단체가 빠지지 않고 찾는다. 다산이 백련사의 혜장선사와 교류하며 오가던 **오솔길**도 걸어보자. 신라 말에 창건된 **백련사**(061-432-0837) 찻집에서는 귀한 백련차를 맛볼 수 있다. 봄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련사 동백이 붉은 꽃을 피운다.

❖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일원은 **전라병영성과 병영마을**이 있는 곳이다. 조선조 500여 년간 전라도 육군 총 지휘부가 있던 병영성의 총 길이는 1060m, 현재 복원중이다. 병영성 인근 병영마을은 납작한 돌을 15도 기울여 빗살무늬로 쌓아 올린 돌담이 특징. 하멜식 담 쌓기 공법으로 제주도에도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이 8년간 머물던 흔적이다. 마을에는 은행나무, 적벽청류 등 **하멜 유적지**가 남아 있다. 마을을 둘러보고 병영성에 들렀다가 홍교로 가는 동선이 효율적이다.

❖ 성전면 월하리에 있는 **무위사**(061-432-4974, www.muwisa.com)는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원효대사가 세웠다. 극락보전 옆에 있는 선각대사편광탑비(보물 제507호)도 살펴보자. 무위사를 돌아본 후 왼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강진다원**이 있다. 전망대에 서면 차밭 전경이 보인다. 다원 인근에 진각국사 혜심이 중건한 **월남사지**가 있다. 이곳에는 백제계 석탑으로 주목받는 3층석탑(보물 제298호)이 있다. 무위사에서 월남사지까지 약 1.5km.

※ **읍선 코스 : 강진청자박물관**(061-430-3710, www.celadon.go.kr)

청자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있다. 청자 체험장에서 2000~1만5000원에 도자 체험이 가능하다. 관람료 어른 1000원, 어린이 400원. 주차료 없음.



1 정약용이 머물던 다산초당. 2 강진 영랑 생가 안뜰. 3 다산초당과 백련사 사이의 오솔길. 4 백련사의 백련차. 5 다산이 머물던 사의재. 6 전라병영성의 모습.

흥진식당 강진군청 앞. 한정식(4인 기본) 6만~8만원. ☎061-434-3031

청지골 중가집 한정식(4인 기본) 8만~16만원. ☎061-433-1100

남도1번지 횃집 마량항 소재. 신선한 회 전문. ☎061-432-2617

설성식당 병영마을 소재. 돼지불고기 백반이 맛있는 집. 한 상(4인분) 2만원.

☎061-433-1282

수인관 병영마을 소재. 돼지불고기 백반 한

상(4인분) 2만원. ☎061-432-1027

전복나라 남성리 소재. 전복 요리 전문 식당. 전복된장찌개 1만원. ☎061-433-8155



강진군청 www.gangjin.go.kr

강진군청 관광개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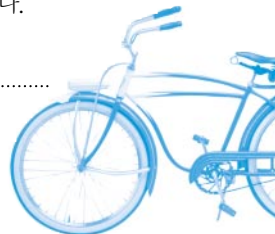
☎061-430-3174~8

하멜캠술

www.hamel.go.kr

와보랑개 박물관

☎061-432-1465



보성

1

푸른 녹차와 함께 봄의 왈츠를

📖 프로그램 성격

- 잘 알려진 일림산 철쭉 단지과 달리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 찾았을 따는 시기에 맞춰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5월 말경 철쭉이 만발할 때나 다향제를 겨냥해서 찾으면 된다.

🚗 **여행 코스** : 호남고속도로 주암 IC - 27번 국도 - **고인돌 공원** - 서재필 공원에서 화순 방면 15번 국도로 우회전 - 18번 국도 - 845번 지방도(울어 방면) - 검백면사무소 - **초암산 철쭉 군락지** - 수남주차장으로 하산 - 77번 2번 국도 - 벌교 - **《태백산맥》 따라잡기** - 857번 지방도 - **낙안읍성 민속마을** - **선암사** - 승주 IC

🚶 **연계 코스** : 대원사나 보성 차밭 여행을 추가하면 좋다. 나오는 길에 순천의 대대포구나 <사랑과 야망> 세트장 등 순천 관광을 연계해도 된다.

📍 장소별 소개 · 특징

➡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내우마을에는 주암호반을 끼고 조성된 **고인돌 공원**(061-755-8363, www.dolmenpark.com)이 있다. 선사시대 문화 유적인 고인돌군을 비롯해 구석기 집터, 신석기와 청동기 움집 6동,

🌸 축제 · 행사 정보

보성 다향제 매년 5월경 대한다원 일원, 일림산 등 ☎ 061-850-5223~4

일림산 철쭉제 매년 5월경 일림산 일원.

☎ 보성군청 해양산림과 061-850-5423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매년 10월경.

☎ 061-850-5225~6

보성전어축제 매년 9~10월경 회천면 울포해수물장 일원. ☎ 061-850-5611

벌교꼬막축제 매년 11월경 벌교제일고등학교, 대포리 갯벌.

☎ 축제추진위원회 061-857-7676

보성차밭 빛의 축제 매년 12월~이듬해 2월 28일.

☎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23

🏠 숙박 · 식당 정보

골망대 펜션 보성을 봉산리, 숙박료 원룸형 비수기 주중 5만원 주말 9만원.

☎ 061-852-1966

www.golmangtae.com

보성 다비치콘도 회천면 동율리, 숙박료 56㎡ 18만원.

☎ 061-850-1100 www.dabeach.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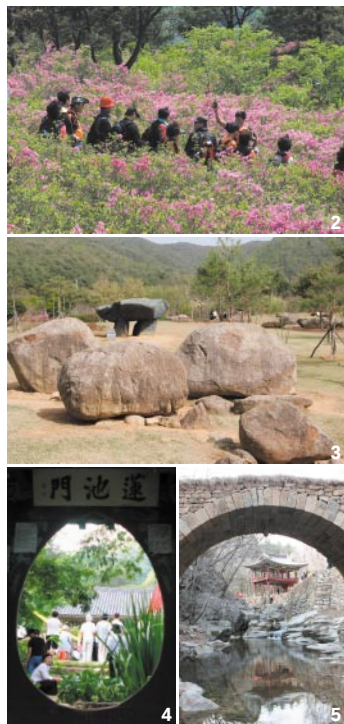
선돌 등이 호반과 어우러져 멋진 풍치를 자아낸다. 이 공원은 주암댐 건설로 수몰된 순천, 보성, 화순 지역의 문화 유적을 옮겨놓은 것이다. 입장료 어른 700원, 어린이 300원. 주차료 없음.

❖ 보성의 일립산 철쭉지는 너무 많이 알려져 철쭉이 피는 시즌에는 북잡하기 이를 데 없다. 반면 겸백면의 **초암산(576m) 철쭉 군락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 한갓진 산행이 가능하다. 2006년부터 보성군에서는 초암산 철쭉제를 개최한다. 초암산의 옛 이름은 '금화산'으로 금화사가 있다. 《보성군지》에 따르면 '백제 때 세워진 금화사는 한때 대찰이었으나 절에 워낙 빈대가 심하게 끓어 태워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작은 암자조차 없고, 마애석불이 과거 이 산에도 절이 존재했음을 알려줄 뿐이다. 겸백면사무소가 있는 석호주차장에서 정상(4km)을 거쳐 철쭉봉까지 오르면서 꽃 감상을 하고, 수남주차장(2.1km)으로 하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철쭉 철에는 겸백면 소재지의 폐교된 겸백중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수남주차장까지 대형 버스가 갈 수 있다.

❖ 초암산에서 하산해 2번 국도를 따라 나오는 길에 벌교를 지난다. 벌교는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 벌교에는 소설 속의 사건이 펼쳐진 장소가 소설과 같은 위치에 있어 사실감을 더해준다. 소설을 열어가면 현부자집, 중도방죽, 포구의 양안을 이어주는 소화다리, 염상구가 결투를 벌인 철다리, 벌교의 이름이 비롯된 홍교 등 많다. 전부 둘러보기 어렵다면 현부자집이나 홍교(보물 제304호) 등에 잠시 눈도장을 찍어도 좋다(문의 : 벌교읍사무소 061-850-5602).

❖ 벌교에서 나오는 길목에 **낙안읍성 민속마을**(061-749-3347, www.nagan.or.kr)을 연계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사극이나 영화에 단골 촬영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다. 매년 5월이면 낙안민속문화축제가 열리고, 남도음식축제장으로도 이용된다. 입장료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 주차료 없음.

❖ 승주읍 죽하리 조계산(884m) 기슭 남쪽에 자리 잡은 **선암사**(061-754-5247)는 매표소부터 차량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계곡물과 청신한 숲 공기를 맞으면서 천천히 걸어야 한다. 덧붙여 선암사는 야생 차밭이 유명하다. 절집 들어가는 길목 숲 사이는 물론이고 건물 뒤쪽에도 차밭이 있다. 5월 초부터 20일 정도 덩음차를 만드는데,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 입장료 어른 1500원, 어린이 600원. 주차료 없음. 선암사 인근에는 순천 전통야생차 체험관(061-749-4202)이 있다. 차를 직접 만들고 시음하며 산사와 명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다도 예절교실도 운영된다.



1 북재에서 내려다본 다원. 2 초암산 철쭉 군락지. 3 고인돌 공원. 4 대원사. 5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

다함도텔 화천면 영천리. 숙박료 3만~4만원
선. ☎061-852-5087
제암산휴양림 웅치면 대산리. 33㎡(6인실)
4만원(성수기 5만원). ☎061-852-4434
보성양탕 보성을 보성리. 양탕전 7000원.
☎061-852-2412
한길로회관 보성을 인사동. 한정식 1만원.
☎061-852-3281

행낭횃집 화천면 울포해변. 바지락회무침 3만
~4만원. ☎061-852-8072
녹차골식당 보성을 보성리. 녹차돼지고기
8000원. ☎061-853-3222~3
벌교교막식당 벌교읍 화정리. 교막정식, 1만
원. ☎061-857-7675
교막마을 벌교읍 화정리. 교막정식 1만원.
☎061-857-0006 www.kkmac.com

기타 정보
보성군청
☎061-852-2181
www.boseong.go.kr





1

유자 향기 따라 찾아가는 고흥반도

📖 프로그램 성격

- 봄 유채와 벚꽃, 여름 해수욕, 가을 유자, 겨울 철새 등 사계절 내내 여행 주제 다양.
-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우주센터를 유람선 타고 먼 발치에서나마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여행 코스** : 호남고속도로 주암 IC - 27번 국도 - 송광사 입구 - 벌교 - 고흥읍 - **유자공원** · **특산물 전시판매장** - 읍내로 나와 15번 국도 - 나로1대교 - **외나로도 상록수림** - **나로도항(유람선, 우주센터)** - 77번 국도 - 영남면 - **남열해수욕장** - **용암마을** - **능가사** - 호남고속도로 순천 IC

🚶 **연계 코스** : 순천만의 갈대밭이나 낙안읍성, 보성 차밭 등을 연계하면 주목받을 수 있다.

📍 장소별 소개 · 특징

➡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에 있는 **유자공원**은 녹동항 가는 27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특산물 전시판매장**(061-830-5315)과 유자공원이 나뉜다. 늦가을, 유자공원이라는 팻말을 따라 유자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오르면 사방에 펼쳐진 유자밭을 만난다. 유자밭 사이사이로 석류를 심어 노란 유자와 붉디붉은 석류, 감까지 뒤섞여 나름대로 운치 있는 유자 산책로다. 유자가 노랑게 익는 계절이 아니면 풍광은 그리 좋지 않다.

🌸 축제 · 행사 정보

고흥우주항공체험전 매년 7월 말~8월 초 고흥군 공설운동장 일원. ☎061-830-6000
녹동바다불꽃축제 매년 5월 중순 녹동항 특설 무대. ☎녹동정년회의소 061-842-2811
나로도 수산물축제 매년 10월 중순 봉래면 나로도항 물양장. ☎061-835-1652
도화현미술관 연 염색 체험이 가능하다.

☎061-832-1333 www.dowhahun.com

🏠 숙박 · 식당 정보

팔영산자연휴양림 영남면 우천리. 26㎡ 5만 원, 40㎡ 7만원, 53㎡ 10만원, 83㎡ 12만원.
고흥군청 경제산림과 061-830-5430.
관리사무소 061-830-5386
빅토리아호텔 도화면 발포리. 2인 1실 7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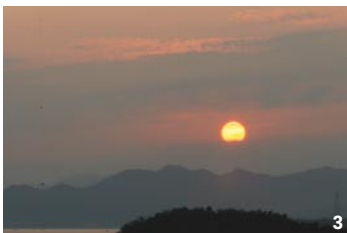
7000원(비수기). ☎061-832-3711

하안노을 동일면 봉영리. 숙박료 4만~5만원. ☎061-833-8311

프리자호텔 봉래면 신금리. 숙박료 2만5000원 선. ☎061-835-6599

동백장 봉래면 신금리. 숙박료 2만5000원 선. ☎061-835-0100

진보각 봉래면 신금리. 숙박료 2만5000원



1 풍암면 한동리의 유자공원. 2 팔영산 정상의 모습. 3 중산리 낙조. 4 나로도 유람선. 5 남열 해안길. 6 능가사.

✚ 유람선을 타려면 나로도항으로 간다. 이 항구는 오래전에는 삼치 파시(삼치 어장의 중심지)로 유명했다. 일제강점기에 전기와 수도물이 들어갈 정도로 부자 마을이었으며, 한때는 고흥군 세수의 3분의 1을 충당했다고 한다. 오전 8시가 되면 해산물과 산낙지 경매가 시작된다. 횃집을 이용해도 좋고 횃감을 떠 가도 좋다.

✚ **나로도항**에 유람선(061-833-6905)이 있다. 불쑥 솟은 바위와 별령 드러누운 바위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꼭두여, 카멜레온바위, 사자바위, 용굴, 쌍굴 등 해안 절경이 이어진다. 하반마을에 들어선 **우주센터**를 배 안에서 볼 수 있다. 2시간 소요, 1만5000원. 부정기적 관광유람선이므로 예약 필요.

✚ 나로도에는 나로도해수욕장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록수림**이 있다. 길게 뻗은 백사장과 노송이 아름다운 나로도해수욕장 한쪽의 상록수림에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70여 종이 어우러져 있는데 봉긋 솟아오른 젖 무덤 같다. 숲에 들어서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다.

✚ 나로도 여행을 마친 다음 영남면으로 이동, 남열해수욕장이나 용암마을 등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다. **남열해수욕장**은 파도가 높아 어린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해안길을 따라 조금 더 가면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용암마을**을 만난다. 용바위는 제주도의 용바위 해안이나 고성 of 상죽암을 연상케 한다. 용이 바

다에서 용바위를 발판삼아 등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곳은 전국에 널리 알려진 바다 낚시터이기도 하다.

✚ 마지막으로 팔영산 **능가사**를 답사한다. 능가사는 예전에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와 함께 호남 4대 사찰로 꼽혔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22년(1644)에 정현대사가 다시 세운 후 능가사라고 했다.

고흥반도를 떠나기 직전, 해가 질 무렵이라면 중산리나 남양리의 낙조를 감상해보자. 반나절 정도 시간을 잡아 녹동항 맞은편의 소록도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선 ☎061-833-9929

포두식당 한정식 1만~2만원 선

☎061-834-5555

고센 보리밥 5000원 ☎061-833-0408

감미횃집 두원면 대진리, 봉장어 1만5000원

☎061-833-4316

진미회관 봉래면 신금리, 회와 매운탕

☎061-833-6615

순천횃집 봉래면 신금리, 회와 매운탕

☎061-833-6441

광주식당 도양읍 봉암리, 콩나물국밥 4000원

☎061-842-5400



기타 정보

고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30-5224

igoheung.go.kr

여객선(녹동-제주도)

☎(주)남해고속 061-842-6111

여객선(녹동-거문도)

☎(주)청해진해운 061-844-2700

www.cmcline.co.kr

여객선(녹동-금산-금당-금일-악산·신지)

☎평화해운(주) 061-843-2300

진도아리랑 가락과 함께 문화 유적 답사

📖 프로그램 성격

- 삼별초의 대몽항쟁 격전지 진도의 역사 탐방.
- 갯벌 체험을 겸한 가족 자연 학습 체험.
-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낙조가 아름다운 10~11월.

🚗 **여행 코스**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 - 영암방조제 - 해남군 문내면 - 진도대교 - **녹진전망대** - 18번 국도 진도 시내 - 9번 지방도 - **왕온의 묘** - **운림산방** - 18번 국도(금갑리 방면) - **죽림마을**(조개잡이 체험) - 18번 국도(임회 방면) - **남도석성** - 팽목항 - 연동제2교 좌회전 - 심동교 좌회전 - **세방낙조** - **진도향토문화회관**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

🕒 **연계 코스** : 089(해남) 코스나 목포 시내 관광과 연계하면 좋다.

📍 장소별 소개 · 특징

➡ **녹진전망대**는 울돌목과 진도대교를 한눈에 담아낼 수 있는 곳이다. 진도대교를 지나 왼쪽 산길로 접어들면 전망대 앞까지 차로 이동할 수 있으며, 충무공 유적지 벽파진까지 길이 연결된다.

➡ 몽골군에 대항한 삼별초 승화후 온의 묘소가 바로 **왕온의 묘**다. 몽골군의 집요한 공격에 용장산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퇴각하던 승화후 일행은 지금의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부근에서 여몽연합군과 첫 번째 격전을 치르는

🌳 축제 · 행사 정보

신비의 바닷길 축제 매년 4월 말 또는 5월 초

☎ 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40-3131

진도아리랑축제 매년 11월 초

☎ 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40-3131

남도민요전국경창대회 매년 11월

☎ 진도국악협회 061-544-0588

🍽️ 숙박 · 식당 정보

성온장 의신면에 위치.

☎ 061-543-7717

태평모텔 진도읍에 위치. ☎ 061-542-7000

프린스모텔 진도읍에 위치. ☎ 061-542-2251

다도해 관광화센터 지산면 세방 낙조전망대 옆에 위치. 자연산 활어회와 매운탕 전문.

데, 이 격전에서 승화후와 그의 아들 향이 몽고의 장군 홍다구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곳이 바로 왕온의 묘가 있는 ‘왕무덤재’다.

➡ **운림산방**(061-543-0088)은 허련이 말년에 서울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인 이곳에 돌아와 거처하며 그림을 그리던 화실의 당호다. 진도읍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침찰산 서쪽 쌍계사와 가까운 곳에 있으며, ‘ㄷ’자 기와집 운림산방과 그 뒤편의 초가로 된 살림채, 새로 지어진 기념관으로 구성된다. 소치기념관에는 운림산방 3대의 작품과 수석, 도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시간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800원.

➡ 전남 진도군 임회면에 위치한 **죽림마을**(죽림어촌계 061-544-0719)은 2003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어촌 체험 마을’로, 간조시 드러나는 넓은 간석지에서 조개잡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죽림마을에서 주로 잡히는 조개로는 바지락, 마조개, 해방고둥, 울조개, 동죽조개, 맛조개 등이 있고, 간조 때는 개매기 어구를 이용해 숭어 등 바닷고기도 잡을 수 있다. 조개잡이 체험은 봄부터 가을까지 물때만 잘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특히 가을철에 맛조개나 동죽조개가 많다. 조개잡이 체험에는 별도의 체험료는 따로 없으나,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마을 주민에게 한 명당 5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에 위치한 **남도석성**(사적 제127호)은 삼별초 항쟁의 주역 배중손 장군이 최후를 맞은 곳이다. 배중손 장군의 죽음으로 삼별초의 9개월에 걸친 영광과 10일간의 치열한 전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배중손 장군이 최후를 맞은 남도석성은 삼국 시대에 쌓은 성이지만, 지금의 남도석성은 조선시대에 왜구를 막기 위해 증·개축한 것으로 둘레 610m의 석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 중앙기상대에서 한반도 최남단 제일의 낙조 전망지로 꼽은 **세방 낙조**는 진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해 질 무렵 섬과 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일몰은 주위의 파란 하늘을 단풍보다 붉은빛으로 물들인다.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도향토문화회관**(061-540-3541)에서 열리는 진도토요일민속여행은 필히 관람해야 한다. 남도들노래, 진도아리랑, 진도북춤 등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 세방 낙조전망대에서 바라본 일몰. 2 왕무덤재에 있는 왕온의 묘. 3 배중손 장군이 최후를 맞은 남도석성. 4 낙진전망대에서 본 진도대교. 5 팽목항의 아침 풍경.

☎ 061-543-7227

옥천횟집 진도읍 칠마광장 앞에 있는 해산물 회정식 전문점. 회정식(4인 기준) 12만원, 정식(4인 기준) 10만원. ☎ 061-543-5664

사랑방식당 진도읍 클레프 골목 끝자락에 위

치. 간재미회, 간재미탕, 생선구이, 장어탕 등.

☎ 061-544-4117

제진관 진도 읍내에 위치. 간재미회, 탕, 무침, 짬이 주 메뉴. ☎ 061-544-2419

기타 정보

진도군청 www.jindo.go.kr

진도군청 문화관광과

☎ 061-540-3219

해남

1

공룡 화석, 겨울 철새, 땅끝 일출과 일몰 등 볼거리 풍성

프로그램 성격

- 자연사 유적 탐방과 겨울 철새 탐조, 사찰 순례를 곁들인 생태 여행.
- 수도권에서는 이동 거리가 워낙 길어서 1박 2일 이상의 일정이 필요한 코스다.
- 고천암에 겨울 철새가 날아드는 겨울, 땅끝 일대나 미황사에 유채꽃과 동백꽃이 피는 이른 봄이 적기.

여행 코스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 - 영암호방조제 - 황산면 소재지 - **우항리 공룡화석지** - 황산면 소재지 - 77번 국도 - **고천암 방조제** - 화산면 소재지 - 13번 국도 - 월송리 - 서정리 - **미황사** - 송지면 소재지 - **대죽리 조개잡이 체험어장** - 송호해수욕장 - **땅끝전망대** - 남창리 좌회전 - 13번 국도 - 해남터널 - 월산교차로 - 2번 국도 - 영산강하구언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

연계 코스 : 녹우당, 대흥사, 두륜산 케이블카 등을 포함하면 1박 2일 코스로 안성맞춤. 088(진도)이나 094(완도) 코스와 연계하면 2박 3일 여행이 가능하다.

장소별 소개 · 특징

➔ **우항리 공룡발자국화석지**에는 2007년 4월에 개관한 공룡박물관을 비롯해 조각류 공룡관, 익룡·조류관,

축제 · 행사 정보

땅끝해남이해맞이축제 매년 12월 31일~1월 1일 송지면 땅끝마을 일원.

☎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061-530-5229

대흥사단풍축제 매년 11월 초순 두륜산도립공원 일원.

☎ 축제추진위원회 061-534-6130

숙박 · 식당 정보

콘도형땅끝모텔 송호해수욕장과 땅끝 사이의 비닷가 언덕에 위치한 모텔. 땅끝전망대의 야경과 해돋이도 감상할 수 있다.

☎ 061-535-5001 www.ttangkkeut.co.kr

사파이어모텔 해남 읍내에서 비교적 시설이 좋고 깔끔한 모텔. 인터넷 사용도 가능하다.

☎ 061-537-4825

용궁해물탕 '남도 음식 명가'의 하나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해물탕 집으로 평가되는 맛집. 유일한 메뉴인 해물탕에는 무려 30여 가지 해산물들이 푸짐하게 들어간다. 담백한 해물과 시원한 육수가 기막히게 어우러진 국물 맛이 일품이다. 해남 읍내에 위치. ☎ 061-535-5161

장수통닭 일반적인 통닭집이 아니다. 메뉴는 토종닭과 오리로스 두 가지뿐인데, 토종닭 한

대형공룡관 등 전시관과 보호각 건물이 있다. 대체로 건물 내부의 전시물이나 공룡 발자국만 둘러보고 발길을 돌리는데, 우항리 공룡 발자국 화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탐방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다. 발자국이 워낙 크고 또렷해서 마치 방금 전에 찍은 듯하다.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여름보다 역새와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 겨울의 풍광이 아름답다.

➡ 해남읍, 황산면, 화산면에 걸쳐 있는 **고천암호**는 대규모 간척 공사로 생겨난 인공 호수이자 국내 최대의 겨울 철새 도래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2970만㎡에 이르는 호수 주변에 광활한 갈대밭이 펼쳐져 있고 자연 풍광이 아름다워서 <서편제> <살인의 추억> <청풍명월> 등 영화와 각종 CF가 촬영되기도 했다. 호수 주변에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잘 닦인데다 출입로가 여섯 군데나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이다. 한겨울에는 호수 저편의 두륜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도 볼 수 있고, 음력 보름날 밤의 달빛 교묘한 풍경도 매우 운치 있다. 가장오리 떼가 날아드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아침저녁에는 가장오리 떼 수십만 마리가 펼치는 군무를 구경할 수 있다(문의: 조수 보호 자원봉사자 김정웅씨 011-344-7144).

➡ 공룡의 이빨처럼 뾰족뾰족한 달마산(489m) 중턱에는 천년 고찰 **미황사**(061-533-3521, www.mihwangsa.com)가 있다. 달마산 연봉에 둘러싸인 미황사 앞쪽에는 다도해가 은빛으로 일렁인다. 그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해 질 녘의 풍광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장관이다. 절집에서 약 1km 떨어진 부도밭에는 개성과 해학이 넘치는 부도가 가득하다. 부도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면 미황사까지 가는 천리 길도 가깝게 느껴진다. 이른 봄날의 정열적인 빛깔로 피고 지는 동백꽃도 일부러 찾아볼 만하다. 미황사는 템플스테이 운영이 활발한 사찰 중 하나다.



미황사 대신 대흥사(061-534-5502)를 답사해도 무방하다. 집단시설지구에서 경내까지 이어지는 10리 숲길은 굽이굽이 계류를 따라 걸어가는 산길이라 지루한 줄 모른다.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내는 금당전을 경계로 대웅보전이 있는 복원, 천불전이 있는 남원으로 나뉜다.

➡ **대죽리 조개잡이 체험어장**은 여름 한철, 그것도 7~8월에만 개방된다. 마을 앞의 대섬은 썰물 때마다 육지와 연결된다.



➡ **땅끝전망대**에는 길이 395m의 모노레일(061-533-4414)이 설치되어 노약자나 어린이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두륜산도립공원에서 케이블카(061-534-8992)를 타고 정상 아래까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선로 길이는 1600m, 탑승 시간 8분. 정상에서는 다도해는 물론 날씨가 좋으면 한라산까지 보인다. 일출 감상을 원하는 단체는 예약해야 한다.



1 노을에 젖은 고천암호 풍경. 가장오리 떼가 호수로 날아든다. 2 우항리 공룡화석지에 또렷하게 남아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과 굴격 모형. 3 대죽리 조개잡이 체험어장. 4 땅끝 인근의 유채꽃 단지.

마리를 주문하면 육회, 불고기, 백숙, 족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돼 나온다. 읍내에서 대흥사 가는 길목에 위치. ☎ 061-535-1003

동산화관 굴로 만든 죽, 국밥, 비빔밥 등이 맛있는 집으로 아침식사 하기에 특히 좋다. 해물탕과 전복회, 가지미회 등도 내놓으며, 코스 요리도 있다. 땅끝에 위치. ☎ 061-532-3004

기타 정보

해남군청

☎ 061-530-5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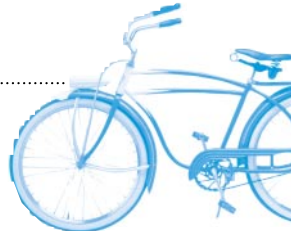
tour.haenam.go.kr

우항리 공룡박물관

☎ 061-532-7225

uhangridinopia.haenam.go.kr

두륜산도립공원 ☎ 061-533-0088





신안 증도

해수욕장, 갯벌, 염전 골고루 갖춘 ‘보물섬’

프로그램 성격

- 피서와 체험을 겸한 섬 여행 프로그램.
- 주로 여름철에 이용할 코스이므로 배편, 숙박 시설, 식당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 해수욕이 가능한 여름 피서철이 최적기나, 갯벌 · 염전 체험이 가능한 5~6월과 9월도 괜찮다.

여행 코스 :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IC - 1번 국도(목포 방면) - 교촌 교차로 우회전 - 60번 국지도 - 현경 교차로 - 24번 국도 - 신안 지도 사거리 좌회전 - 지도대교 - 사옥도 지신개선착장(철부선 이용) - **증도(우전해수욕장 · 짱뚱어다리 · 엘도라도리조트 · 태평염전 · 신안해저유물발굴기념비)** - 지도대교 - 송도어판장 - 지도 사거리 우회전 - 24번 국도 -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IC

연계 코스 : 093(무안) 코스와 연계하거나 지도의 점암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입자도의 하루 코스와 연계하면 1박 2일 여행으로 좋다.

장소별 소개 · 특징

우전해수욕장은 은빛 모래 해변이 남북으로 4km나 이어진다. 모래가 매우 곱고, 썰물 때는 머드 마사지도

축제 · 행사 정보

섬갯벌올림픽축제 매년 8월 초순, 증도 우전해수욕장 일원.

☎ 061-240-8356 mudislands.com

숙박 · 식당 정보

엘도라도리조트 우전해수욕장의 남쪽 끝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다. 이따한 전용 백사장과

오토 선착장도 있다. 모든 객실이 바다를 향해 전망이 좋다. 내부에 야외 수영장도 있고, 리조트 내의 남도한식당(061-260-3322)에 예약하면 가든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 061-260-3300

www.eldoradoresort.co.kr

그밖에 숙소

☎ 남해여인숙 061-271-7566

☎ 보물섬 민박 061-271-0631

☎ 현대장 061-271-7528

☎ 안성민박 061-271-7998

☎ 우전민박 061-275-7010

고향식당 증도면 소재지 초입의 도로변에 위치. 안제라도 식사가 가능한 상설 식당. 민어, 농어 등의 생선회와 백반, 삼겹살 등 선택 가능한 메뉴가 많다. ☎ 061-271-7533



1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태평염전. 염전 체험이 가능하다. **2** 지도읍에서 증도 가는 길목에 위치한 송도어판장에서 병어를 경매하는 광경. **3** 증도 옐도라도 리조트의 야외 수영장. 길이 4km의 우전해수욕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4** 증도 '짱뚱어다리'와 일출 광경. **5** 증도의 드넓은 갯벌을 가로지른 짱뚱어다리.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이다. 이곳 갯벌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해 매년 여름이면 '게르마늄 갯벌축제'도 열린다. 증도 버지선착장에서 우전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은 크게 증도면 소재지를 거치는 길과 대초리를 거치는 길이 있다. 대초리 방면으로 가면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지 화도와 유럽풍의 종합 해양 리조트 **옐도라도리조트**를 찾아가기 쉽다. 해송이 늘어진 우전해수욕장에서는 해넘이를 감상하기에도 좋다.

우전해수욕장 전경을 살펴보기 좋은 자리에 위치한 신안갯벌생태전시관 1층에는 갯벌전시실과 영상실, 2층에는 갯벌체험학습실, 갯벌교육실, 전망대, 갯벌상품전시관 등이 있다. 관람 시간 09:00~17:00. 월요일 휴관.

➡ 증도 한복판에는 단일 염전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태평염전**(061-275-7541, www.sumdleche.com)이 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약 5%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염전 초입의 석조 소금창고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예고됐을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다. 50여 년간 한자리를 지킨 이 소금창고는 국내 최초의 소금박물관(061-275-0829)으로 변신했다. 태평염전은 소금창고를 길목에 두고 두 갈래로 나뉜다. 소금박물관 뒤편의 야산 정상에 올라서면 드넓은 태평염전뿐만 아니라 우전해수욕장, 화도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는 대패질, 수차 돌리기, 함초 관찰하기 등 염전 체험도 가능하다.

➡ 우전해수욕장의 북쪽 갯벌에는 **짱뚱어다리**라는 갯벌 생태 탐방로가 개설되었다. 드넓은 갯벌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에서는 농게, 칠게, 갯지렁이, 짱뚱어 등 갯벌 생물을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 다리를 건너가면 곧장 우전해수욕장의 북쪽 해변에 닿는다.

➡ 증도의 맨 서쪽 해안에 **신안해저유물발굴기념비**가 있다. 지난 1976년 증도 방축리에서 서북쪽으로 2.75km 떨어진 바다에 묻혀 있던 중국 송·원대의 유물이 다량 인양된 사실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이곳 해안에서 먼 소재지까지는 아늑하고 편안한 해안 드라이브 코스가 이어진다. 내내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달리는 이 길에서는 올망졸망한 섬과 아담한 모래 해변, 독살 체험장 등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 증도는 별로 넓지 않은 섬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2~3시간 만에 다 둘러볼 수도 있다. 그래서 증도면에서는 2007년 여름부터 섬 전체를 '자전거 섬'으로 선포하고, 자전거 350대를 비치해 누구든지 탈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는 섬 여행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송도위판장 지도에서 증도로 가는 길목의 솔섬에는 신안군 최대의 송도위판장이 있다. 철철이 다양한 종류의 활어가 넘쳐나는데, 특히 5월 병어잡이 철에는 국내 최대의 병어 시장이 형성되고, 병어축제가 열린다. 각종 젓갈과 활어, 건어물을 저렴하게 파는 가게도 많으므로 증도를 오가는 길에 꼭 둘러볼 만하다.



기타 정보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 061-240-8350

www.sinan.go.kr

증도면사무소 ☎ 061-271-7619

증도 - 사육도 철부선 08:30~18:00 하루

6회 운항, 15분 소요

☎ 재영해운 061-275-7685



신안 우이도

1

바람, 파도, 모래가 만든 천하 절승

📖 프로그램 성격

- 섬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다도해 여행.
- 기상에 따른 변수가 많으므로 미리 체크하여 기상 조건이 좋은 때만 운용한다.
- 피서 인파가 몰리는 여름보다는 피서철 직전이나 직후가 좋다.

🚗 **여행 코스**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 - 목포여객선터미널 - **우이도(모래산 · 돈목해수욕장 · 돈목~진리 트레킹)** - **도초도**(시목해수욕장, 고란평야, 초분, 석장승) - **비금도**(하누넙해변, 명사십리해수욕장) - 목포여객선터미널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

🕒 **연계 코스** :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우이도가 중심이 되는 코스이므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도초도와 비금도 일정은 제외한다. 목포에서 배를 타거나 목포로 나와야 하므로 우이도에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목포 시내의 명소를 추가로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좋다.

📍 장소별 소개 · 특징

➡ **우이도**에는 유별나게 모래가 많다. 섬 곳곳에 지천으로 흩어진 모래밭은 조수와 바람의 변화에 따라 광활한 사막을 형성하거나 기묘한 예술 작품을 빚어낸다. 그중 가장 탁월한 작품은 돈목해수욕장의 북쪽 끄트머리에 우뚝한 **모래산**이다. 높이는 80m에 불과해도 남쪽 비탈이 몹시 가팔라서 곧바로 오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 숙박 · 식당 정보

다모아민박 여객선 매표소를 겸하고 있어서 배 타기도 편리하고,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어장에서 잡아 온 자연산 생선도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다. 게다가 주인 아주머니의 손맛

이 좋아서 해물 요리가 맛깔스럽고 풍성하다.

☎ 061-261-4455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에서 운영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모래산의 비밀' 알아보기, 도리산 야간 등반, 무인도

에서 살아남기 등이 있다. 7·8월에만 운영.

☎ 061-284-9115 dadohae.knps.or.kr

돈목해수욕장에서 바로 오르는 것보다는 성촌마을 쪽으로 우회하는 것이 수월하다. 일단 정상에 올라서면 돈목해수욕장과 큰대치미 해변 일대의 풍광이 장중한 시네마스코프의 한 장면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부드럽게 물결치는 모래산과 시리도록 맑은 쪽빛 바다의 조화도 참으로 절묘하고 독특하다. 하지만 근래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모래산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둘러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 모래산 아래부터 넓은 백사장이 펼쳐지는 **돈목해수욕장**은 우이도 최대의 해수욕장이다. 백사장이 단단하고 경사도 완만해서 여름철에는 많은 피서객이 찾아온다. 게다가 진리 부근의 띠밭넘어해수욕장, 성촌마을의 큰대치미해수욕장 등에 비해서 샤워장, 탈의실, 민박집 등의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큰 불편 없이 피서를 즐길 수 있다. 또 울창한 해송 숲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백사장 곳곳에 작은 개울을 이뤄 웅색하게나마 담수욕도 즐길 수 있고, 근사한 해넘이 광경도 감상할 수 있다. 돈목마을 주변에는 돈목해수욕장 이외에도 보고 즐길거리가 많다. 걸어서 10~20분 거리에 모래산, 목개해변(비밀해수욕장), 장고래미장굴 등의 명소가 흩어져 있다.

❖ 우이도 행정의 중심지는 우이도출장소와 한국전력, 보건지소, 초등학교(폐교) 등이 자리 잡은 진리마을이다. **돈목~진리**까지는 꼬박 10리(4km) 길인데, 고개 둘을 넘고 덩불진 자드락길을 2시간쯤 걷는 이 길은 아주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다. 진리에서 돈목마을로 돌아갈 때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목포항에서 낮 12시10분, 도초항에서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한 철부선은 오후 3시경 진리항에 들렀다가 약 40분 뒤 돈목항에 도착한다. 그러므로 배 시간을 잘 계산해서 트레킹을 진행해야 한다. 우이도 동남쪽에 위치한 동·서소우이도와 작은 마을인 선창구미, 예리 등을 두루 경유하는 이 철부선에서는 우이도 남쪽 해안의 수려한 경관도 감상할 수 있다.

❖ 우이도의 어미섬인 **도초도**와 **비금도** 사이에는 연도교가 놓여 있어서 왕래하기가 편리하다. 두 섬 모두 우이도보다 훨씬 커서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행정기관과 여관, 식당, 슈퍼 등 편의 시설도 있다. 그러므로 우이도를 경유하는 길이 아니면 화물선에 자가용을 싣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우이도를 오가는 길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도초도의 시목해수욕장, 고란평야, 초분, 석장승과 비금도의 하누님해변(하트해변), 명사십리해수욕장 등을 둘러보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두 섬을 일주하는 데 2시간 정도 소요되며, 택시 대절료는 5만원이다.



1 우이도 모래산, 2 하트 모양 해변이 인상적인 비금도 하누님해변, 3 도초도 들녘에 외따로 모서진 초분, 4 단단하고 평평한 모래 해변이 길게 이어지는 비금도 명사십리해수욕장, 5 도초도의 석장승 표정이 매우 익살스럽다.

기타 정보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061-240-8350
www.sinan.go.kr
도초면사무소 우이도출장소
 ☎061-261-1866

우이도 돈목마을
 ☎한흥호 이장 061-261-1860
여객선(목포 - 우이도)
 ☎목포대흥상사 061-244-0005

여객선(목포 - 비금도/ 도초도)
 ☎목포대흥상사 061-244-0005
 ☎비금농협 061-275-5251
 ☎동양고속 061-243-2111



불교 유적지 만나고 굴비 맛본 뒤 장엄한 일몰 감상

☞ 프로그램 성격

- 명품 여행의 컨셉트에 맞춰 법성포 굴비 맛 체험과 포구 여행.
- 불교 유적지, 원불교 영산성지, 염산 기독교 순교지 등 종교 성지 골고루 포진.
- 백수해안도로 해당화길은 6~8월이 좋고, 불갑사 꽃무릇은 9월 중순이 절정이다.

☞ **여행 코스** : 서해안고속도로 영광 IC - 영광읍 - 23번 국도 - 불갑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 - **불갑사** - 23번 국도 - 영광읍 - 22번 국도(법성포 방면) - **법성포**(포구산책, 어시장) - **백제불교최초도래지** - 그린종합카센터 셋길 불갑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 - **백수해안도로** - **백수해안공원(팔각정)** - **백암해안전망대** · **〈마파도〉 세트장** - 백수염전 - 백수읍 - 844번 지방도 - 영광읍 - 서해안고속도로 영광 IC

☞ **연계 코스** : 075(고창)나 093(무안) 코스와 연계해 1박 2일 프로그램을 구성해도 좋다.

🔍 장소별 소개 · 특징

➡ 불갑면의 **불갑사**(061-352-8097, www.bulgapsa.org)는 백제 침류왕 때 인도승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래하면서 제일 처음 지은 불교 도량이다. 꽃살문이 돋보이는 대웅전에 들어서면 남향 건물임에도 불상이

🌸 축제 · 행사 정보

법성포 단오제 매년 6월 중순.
☎ 061-356-4331 danoje.co.kr
옥당문화제 매년 9월 중순.
☎ 061-350-5752
불갑사 상사화 축제 매년 9월 중순.
☎ 불갑면사무소 061-350-5932

🏠 숙박 · 식당 정보

백수해안 담동펜션 백수해안도로에 있어 객실에서 일몰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백암해안전망대에서 동백마을(영화 〈마파도〉 세트장)을 거쳐 담동마을에 이르는 2km 산책로가 좋다. 숙박료 5만~12만원.
☎ 061-352-7806 www.dapdong.com
팔레스호텔 영광읍 중앙예식장 근처. 객실 35

개. 숙박료 3만5000원. ☎ 061-351-5300
그리스호텔 영광읍 중앙예식장 근처. 객실 24개. 숙박료 3만5000원. ☎ 061-351-1010
로얄호텔 영광 읍내. 숙박료 3만원. ☎ 061-352-0737
다량가지 법성포 바닷가 포구 제일 끝에 있는 집. 꽃게굴비정식 4인 기준 8만원, 참조기 매운탕 3만~5만원, 꽃게찜 3만~6만원.

동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영주 부석사와 공주 마곡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세 곳뿐이다. 봄이면 겹벚꽃이, 여름이면 백일홍, 9월 중순부터 펼쳐지는 꽃무릇이 극락세계를 만들어낸다. 천연기념물 제112호 참식나무 자생 북한지대, 영광 읍내로 나올 때 인공 폭포와 야생화가 지천인 불갑저수지 수변공원도 둘러볼 만하다.

❖ 바다에서 밀려온 토사가 긴 S자형 뱀을 이루며 포구를 들어놓은

법성포(법성면사무소 061-350-5974)는 굴비의 고향이다. 매년 음

력 3월경 칠산 앞바다에서 잡은 튼실한 조기를 법성포만의 독특한 염장 기술로 굴비의 오묘한 맛을 낸다. 꽃게 철이나 조기철 고깃배가 들어오면 법성포는 파시가 형성된다. 나라님 수라상에 진상되던 영광굴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즐비하며, 굴비를 노릇노릇하게 굽는 식당이 여럿 있다.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의 2대 창고 중 하나로, 한양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조창이 있던 자리다.

❖ 백제시대 법성포의 지명은 '아무포'였다. 이는 아미타불의 의미를 함축하는 명칭이며, 마라난타존자가 불교를 전래한 성스런 포구라고 하여 법성포가 되었다. 법성포 뒤편 **백제불교최초도래지**(061-356-6008)에 가면 부용루, 탑원, 간다라 유물전시관, 4면 대불상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부용루의 벽면에 석가모니의 출생에서 고행까지 전 과정이 23개의 원석에 간다라 조각 기법으로 음각되어 간다라 양식 불교 문화를 볼 수 있다.

❖ 원불교 성지부터 대신리를 거쳐 석구미마을까지 총 16.5km의 **백수해안도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될 정도로 환상적인 길이다. 특히 6~8월에 도로 양편은 온통 해당화가 핀다. 먼저 만나는 **백수해안공원 팔각정**에 오르면 거북바위와 모자바위 등 기암절벽에 해안선 위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포인트다. 멀리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아스라이 보인다. **백암해안전망대**에서는 칠산도, 안마도, 송이도 등 칠산 앞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특히 해 질 녘 칠산도 사이로 떨어지는 일몰이 감동적이다. 전망대 아래에는 **〈마파도〉 세트장**이 구성되어 영화 속 즐거움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다.

❖ 염산면과 두우리 야월리, 소암리 일대는 바다처럼 광활한 소금밭이 펼쳐진다. 4시쯤 가면 새하얀 소금을 걷어내는 작업을 지켜볼 수 있으며, 일몰 때 가면 염전 바닥에 비치는 저녁노을이 그림 같다.



1 백수해안도로 2 법성포의 백제불교최초도래지 3 법성포 굴비 4 영광 천일염전 5 백수해안도로에서 바라본 일몰.

☎ 061-356-5588

영학기든 영광읍에서 법성포 방면 5km. 굴비

한정식 2만~3만원. ☎ 061-352-7773

신도회관 영광군청 부근. 단체 100명 가능 굴

비한정식 1만~3만원. ☎ 061-351-2255

국일관 영광 읍내. 굴비정식 1만~3만원.

☎ 061-352-2423

민속정 불갑사 근처. 산채비빔밥 전문.

☎ 061-353-5507

기타 정보

영광군청 홈페이지

www.yeonggwang.jeonnam.kr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 061-350-5751



무안

1

낮에는 회산지 백련 감상, 새벽에는 도리포 일출 맛보기

프로그램 성격

- 무안의 대표적 여행지인 회산백련지에 해제반도의 청정 갯벌 체험을 가미해 보는 관광과 체험하는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백련이 만발하고 갯벌 체험이 가능한 7~8월이나 감태 향이 짙어지는 2월.

여행 코스 :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IC - 1번 국도(무안 방면) - 811번 지방도(성동리 삼거리 좌회전) - 신거리 사거리 좌회전 - **회산백련지** - 811번 지방도(무안 방면) - 60번 지방도(용산 삼거리 우회전) - 24번 국도 평산 삼거리 - 봉오재 삼거리 우회전 - **월두마을** - 봉오재 삼거리 우회전 - 77번 국도(토치 삼거리 우회전) - **도리포 유원지** - 24번 국도(무안 방면) -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IC

연계 코스 : 080(나주)이나 092(영광) 코스, 목포 시내 관광과 연계해서 1박 2일 여행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장소별 소개 · 특징

회산백련지는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용리에 있다. 전체 면적이 33만²m² 정도 되는 이 연못은 일제강점기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축조한 것이다. 회산백련지의 백련꽃은 해마다 7월부터 9월



축제 · 행사 정보

무안백련대축제 매년 8월 경.

☎ 무안군청 관광문화과 061-450-5319



숙박 · 식당 정보

황토골 해제면 창매리에 있는 펜션으로, 목조 건물에 내벽을 황토로 마감했다.

숙박료 36m² 원룸 11만원, 43m² 투룸 13만

원, 150m² 단체룸 30만원. ☎ 061-453-3645

무안비치호텔 망운면 톨머리해수욕장 앞. 숙박료 5만~7만원.

☎ 061-454-4900

백련리조트 일로읍 회산백련지 부근. 수영장, 노래방, 찜질방 등 부대 시설 갖춰짐. 숙박료 4만~5만원(비수기). ☎ 061-287-5959

에 걸쳐 피고 지기를 거듭한다. 그 석 달 가운데 가장 많은 꽃을 볼 수 있는 8월에는 연꽃축제가 열린다.

연꽃축제 행사장으로 가는 길가에는 2300m² 규모의 수생식물 자연학습장도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홍련을 비롯해 가시연, 왜연, 왜개연, 수련, 어리연, 노랑어리연, 순채, 물옥잠, 물양귀비, 물배추 등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각종 수생식물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멸종 위기 식물 가시연꽃이 군락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 **현경면 용정리 월두마을**(8bang.invil.org)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어촌이다. 100여 호가 바다를 마주하고 옹기종기 모여 산다. 월두마을은 동쪽이나 서쪽 어디서 봐도 반달같이 생겼다 해서 붙은 이름. 우리말로로는 ‘달머리 마을’이다.

마을 들머리에는 350년간 해풍을 맞은 곰솔 한 그루가 바다를 굽어보듯 버티고 서 있어 운치가 한결 돋보인다. 마을을 관통하면 바다가 코앞이다. 모래밭 끝자락에 자리한 도당섬에는 높고 푸른 소나무가 빼곡하다. 그 옆이 대섬. 물이 빠지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도당섬을 기준으로 왼쪽이 홀통해수욕장이고, 오른쪽이 갯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습지 보호 지역인 월두마을 갯벌에서는 바지락 캐기 등 다양한 갯벌 체험도 가능한데, 갯벌 보호를 위해 7~8월에만 갯벌 체험(011-633-2713, 061-453-5669)을 진행한다. 갯벌 체험 최소 인원은 20명이며, 체험료는 어른 7000원, 어린이 5000원. 예약 필수.

월두마을 갯벌은 겨울에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서남해안 갯벌에서만 나는 감태(甘苔: 가시파래)가 지천이라 마치 한여름 잘 정돈된 잔디밭을 보는 듯한 초록의 갯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감태는 날이 추워지는 12월에 모습을 드러내 수온이 올라가는 3월 초까지 색을 발한다. 감태 향은 2월에 절정을 이룬다.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에 위치한 도리포 유원지**는 자그마한 포구 앞에 횃집이 늘어서 있고, 인근 영광군과 함평군을 경계로 하는 칠산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라 도미, 농어 등 바다낚시 포인트로 유명하다. 최근 인근 바다에서 14세기경 고려청자가 대량 인양되어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도리포에서는 겨울철에는 함평의 바다 쪽에서 뜨는 해를, 여름철에는 영광의 산 쪽에서 뜨는 해를 볼 수 있다.

도리포를 뒤로하고 24번 국도로 다시 나와 서쪽으로 달려가면 짙막한 연육교 하나를 건너고, 신안군 지도읍 점암마을에서 길이 끝난다. 이 마을에서는 임자도행 철부선이 자주 떠난다. 점암마을에서 배로 15분 거리인 임자도에는 해변이 멋진 대광해수욕장이 있다. 해변 길이가 무려 12km에 달한다.



1 월두마을 갯벌에서 감태를 따는 모습. 2 목조 데크로 이어진 백련지 산책로. 3 해제면도의 해변. 4 월두마을 도당섬 모습.

녹항기든 문탄면 사창리. 짬뽕 삼겹살과 사슴 요리 전문점. 삼겹살을 석쇠에 가지런히 깔 다음 볶짚을 태워가며 고기를 익힌다. 볶짚 특유의 향이 고기에 배어 맛이 좋고, 기름기가 짝 빠진다. 짬뽕 삼겹살 7000원, 사슴전골 2만원, 사슴육회 2만원.

☎ 061-453-8360

내고항빨낙지 무안을 성남리. 무안 빨낙지 전

문점. ☎ 061-453-3828

곰솔기든 망운면 목동리. 무안 빨낙지 전문점.

☎ 061-452-1073

도리포횃집 도리포에 위치. 송어회가 주 메뉴. 자연산 송어는 값이 저렴해도 맛은 고급 어종 뽀뽀다. ☎ 061-454-6890

기타 정보

무안군청

www.mu.go.kr

무안군청 관광문화과

☎ 061-450-5224



완도

서편제 가락 흥얼거리며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 프로그램 성격

-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 탐방을 위주로 구성한다.
- 청산도 여행 마친 후 완도 일주하며 명소 둘러보기.
- 여행하기 좋은 때는 유채꽃과 보리밭이 어우러지는 봄이다.

📍 여행 코스 :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IC - 나주 - 영암 - 강진 - 해남 - 완도대교 - 13번 국도 좌회전 - **장도 정보고 유적지** - 완도항 - 청산도 도청항 우회전 - 순환도로 - **당리마을**(<서편제> <봄의 왈츠> 촬영지) - **고인돌 · 하마비** - 구들장논 - **신흥해수욕장** - **지리해수욕장** - **진산리 갯돌밭** - 선착장 - 완도항 - 77번 국도 좌회전 - 정도리 **구계등** - **소세포 <해신> 세트장** - 완도대교

🕒 연계 코스 : 신지도를 엮어 1박 2일 코스를 만들거나 완도 화흥포 선착장에서 보길도행 일정을 만들 수 있다.

🔍 장소별 소개 · 특징

✚ 완도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장도는 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가 설치한 해군 기지이자 무역 기지이며 청해진의 본거지다. 섬 전체에 성의 흔적이 있고, 주변 바다에 방어용 목책을 박았다. 장도가 보이는 완도 장좌리 바닷가에 장

🌸 축제 · 행사 정보

완도 장보고축제 매년 5월.
☎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50-5255
완도 해넘이 · 해맞이축제 매년 12월 31일~
이듬해 1월 1일.
☎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50-5237
노화전복축제 매년 9월. 노화읍 일원.
☎ 노화읍사무소 061-550-5603

🏠 숙박 · 식당 정보

완도관광호텔 완도읍 가용리. 해수사우나와 다시마탕이 있다. 숙박료 비수기 5만원, 성수기 8만원. ☎ 061-554-0225
www.wandohotel.com
제일민박 청산도 지리해수욕장이 한눈에 보이는 집. 객실 12개. 객실마다 욕실, 냉장고, TV가 있다. 3만원. ☎ 061-552-8807

한바다민박 지리해수욕장 바로 앞. 화장실과 싱크대 구비. 3만원. ☎ 061-554-5035
하늘정원펜션 완도읍 군내리 소재. 통나무 펜션. 객실 14개. 숙박료 10만원부터.
☎ 061-555-0400
www.wandopension.co.kr
칠성모텔 청산도 도청항 위치. 숙박료 2만 5000원. ☎ 061-552-8507

보고 두상과 기념물 등 **장도 장보고 유적지**를 만들어놓았다. 24시간 개방, 입장료 없음. 하루 두 번 물이 빠지면 걸어서 갈 수 있다. 장도와 마주 보는 장좌리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장보고 장군, 송징 장군 등을 모시는 장좌리당제가 화려하게 펼쳐지므로 민속 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은 이때를 놓치지 말자.

✚ 청산도 **당리마을**은 영화 <서편제>가 촬영된 곳이다. 유봉 일가가 황톳길을 내려오며 진도아리랑을 부르던 길과 송화가 득음을 위해 피눈물 나는 소리 공부를 하던 초가가 <서편제> 세트장으로 복원되었다. 초가에는 소리꾼 유봉과 송화, 동호의 모형이 재현되어 있다. 24시간 개방, 관람료 없음. 당리 언덕에는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도 있다. <겨울연가> <가을동화> <여름향기>로 이어지는 윤석호 감독의 사계 시리즈 중 하나로 드라마를 촬영하던 세트장이다. 유채꽃이 가득 피는 봄이면 더욱 경관이 좋다. 관람료 없음.

✚ 청산도에서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돌담과 죽은 사람을 땅에 묻지 않고 이영으로 덮어두었다가 몇 년 뒤 남은 뼈를 주려 땅에 묻는 초분을 챙겨볼 것. 도청리에서 지리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다. 문화재 자료 제116호로 지정된 **고인돌**과 민간 신앙에서 기인한 **하마비**는 읍리마을에 있고, 산비탈에 넓적한 돌을 깔고 그 위에 15~20cm 흙을 덮어 만든 **구들장논**은 양지부락에서 볼 수 있다.

✚ 청산도의 해수욕장은 두 군데. 백사장을 따라 송림이 멋스러운 **지리해수욕장**은 도청항에서 북쪽으로 도보 15분 거리.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

만해 물이 빠지면 어패류와 해조류를 즐기 좋다. 반대편에 위치한 **신흥해수욕장**에서는 해돋이를 감상하기에 적당하다. 편의 시설이나 방풍림은 적지만, 물이 깨끗하고 조용하며 주변 바다가 전부 낚시터다. 신흥해수욕장에서 고개를 넘어가 만나는 **진산리 갯돌밭**은 돌 부딪히는 소리가 좋은 일출 명소로, 주위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수련회, 단체 야영이 가능하다.

✚ 완도의 볼거리 중 **구계등**은 '9개의 계단을 이룬 비탈'이란 뜻. 평소에는 계단의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태풍이나 폭풍 등이 한 차례 지나가면 정확하게 아홉 개의 계단이 드러난다. 구계등 뒤편 참나무, 떡갈나무 등 40여 종의 방풍림을 삼림욕 코스로 거닐어볼 것. 1.2km의 자연 학습 탐방로와 안내판이 있다. 대신리 **소세포 <해신> 세트장**(061-550-5114)은 5만2800m² 부지에 청해진 포구 마을을 재현해놓았다. 선박 12척, 포구, 저잣거리, 군영 막사, 망루 등 청해진 본영과 신라 왕궁, 멋진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입장료 어른 2000원, 어린이 800원. 완도항에서 15분 거리로, 걷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전동 카트가 운행된다.



1 <봄의 왈츠> 촬영지와 당리 황톳길 2 청산도 당리마을 언덕의 유채밭 3 <서편제>를 촬영한 초가집 4 <봄의 왈츠> 세트장 내부

상화식당 완도항만터미널 맞은편, 특산품 매장 겸함, 백반 5000원, ☎ 061-554-4484
바다식당 청산도 도청항 근처, 매운탕 2만 5000원, 백반 5000원, ☎ 061-552-1502
광주식당 완도항 근처, 생선지리탕이 별미 1만5000원, ☎ 061-552-0441
부두횟집 청산도 도청항 옆, 자연산 회 전문, 매운탕 2만원부터, ☎ 061-552-8547

기타 정보

완도군청 www.wando.go.kr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 061-550-5237
청산면사무소 ☎ 061-550-5608
완도수목원 www.wando-arboretum.go.kr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정동리 탐방지원센터
☎ 061-554-1769 dadohae.knp.or.kr

청산도행 카페리
완도항에서 하루 4회
카페리가 운항하며,
45~50분 소요.
승용차를 가지고 가면
왕복 4만2000원.
☎ 청산농협 061-552-9388



장흥

1

봄꽃과 문학이 어우러진 정남진의 고장

📖 프로그램 성격

- 할미꽃, 동백꽃, 유채꽃 등 봄꽃 감상 장소를 연결한다.
- 이청준, 한승원 등 장흥 출신 문학과와 관련 장소를 걸부시켜 구성한다.
- 여행 시기는 봄꽃 개화기가 좋다.

🚗 **여행 코스**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 - 2번 국도(강진 방면) - 23번 국도(관산 방면) - 837번 지방도 우회전 - 천관산자연휴양림 동백숲 - 천관산 장천재 - 관산 삼거리 우회전 - 23번 국도(대덕 방면) - 회진으로 진입 - 한재공원 할미꽃 군락지 - 우회전 여담이 해변 - 여담이 문학산책로 - 이진목 - <천년학> 촬영지 - 진목리 - 이청준 생가 - 23번 국도 -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 목포 IC

🕒 **연계 코스** : 085(강진) 코스와 연계하여 1박 2일 여행을 구성할 수 있다.

🔍 장소별 소개 · 특징

➡ **천관산자연휴양림**(061-867-6974, www.huyang.go.kr)은 봄이면 동백꽃 군락지가 황홀하다. 부평리 기슭 19만8000m²에 수령 100년 내외의 동백나무 2만 그루가 집단 자생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규모

🌳 축제 · 행사 정보

제암철쭉제 매년 5월.

☎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60-0224

정남진 키조개 큰잔치 매년 5월.

☎ 장흥군청 해양수산과 061-860-0411

천관산 익새제 매년 10월 초.

☎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60-0224

전국바다낚시대회 · 전어축제 매년 9~10월.

☎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60-0255

🏠 숙박 · 식당 정보

천관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비수기 23m² 3만2000원, 50m² 6만원, 야영 데크 4000원, 일반 야영장 2000원.

☎ 061-867-6974 www.huyang.go.kr

유치자연휴양림 16~20m² 숲속의 집이 3만

원, 23~26m² 4만~5만원, 46m² 10만원.

☎ 061-863-6350 www.yuchi.or.kr

진송관광호텔 장흥 읍내 소재, 객실 41개, 일식당과 한식당 구비. 숙박료 4만원부터. ☎ 061-864-7775

옥섬위터파크 옥공마을 소재. 사계절 야외 워터파크, 재래식 불한중막, 식당 등을 갖춘 웰빙 타운. 일반실 4만원부터. 89m²의 콘도형

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동백꽃의 절정기는 3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입장 시간 07:00~20:00. 입장료 어른 1000원, 어린이 300원. 승합차 이하만 휴양림으로 갈 수 있다.

❖ 장흥군 회진면에 있는 **한재공원 할미꽃 군락지**는 10만m²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3~4년 전 산불이 난 자리에 할미꽃 군락이 형성되었다. 3월 말이 절정으로 이 시기를 즈음해 할미꽃축제를 개최한다. 행사에 대한 내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와 '야생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홈페이지(www.pulpiri.net) 참조. 관람 시간 1시간 30분. 할미꽃 전시회와 할미꽃 전설의 구연동화, 패랭이꽃 등 야생화 50여 종 전시, 생약초 전시, 천연 염색 체험, 할미꽃 그리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 득량만과 맞닿은 장흥군 수문리, 울산마을 여담이 해변에 **여담이 문학산책로**가 있다. 1966년부터 작품 활동을 하는 장흥 출신 중견 작가 한승원 선생의 <어둠> <여담이 바다의 혼례> <모래알> 등 30여 개의 시비가 20m 간격으로 세워졌다. 총 길이는 600여m, 바닷가를 둘러보고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간이의자와 돌과 나무로 된 통로가 조성되었다. 소나무, 아카시아, 동백나무가 모래톱과 어우러져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깨끗한 갯벌이 숨쉬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뽑혔다. 24시간 개방, 관람료 없음.

❖ 장흥 회진면 산자마을은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 촬영지**다. 바닷가에 세워진 주막집 세트장이 볼 만하며, 건너편 마을 언덕에 조성된 9만9000m²의 유채꽃밭이 장관이다. 가을철이면 메밀밭으로 바뀐다. <천년학>은 이청준의 소설 <선학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1993년 큰 반향을 일으킨 <서편제>의 후속편이다. <선학동 나그네>가 이 마을을 배경으로 쓰였기에 마을 이름도 선학동으로 바꿀 예정이다.

❖ 회진면 진목마을에 **이청준 생가**가 있다. 2004년 말부터 복원을 시작해 2005년 4월에 완료, 내부에는 이청준 작가의 사진, 이력, 저서들을 볼 수 있고 마당에는 관련 조형물을 만들어놓았다. 진목마을(사무장 임봉민 011-9618-5241, www.jinmok.com)은 장흥군이 선정한 생태 체험 마을로, 2005년부터 '뫓생긴 호박축제'를 개최해왔다. 호박마차 타기, 호박터널 체험, 호박죽 만들기 등과 함께 민박이 가능하다. 토요일에 가서 문인 생가 방문 중 한 군데를 생략한다면 그 시간에 정남진 토요일상설시장을 찾아가자. 장흥 한우를 맛볼 것. 정육점에 가서 원하는 만큼 한우를 산 다음 반찬거리와 양념거리를 내주고 고기를 구워주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장흥 별미를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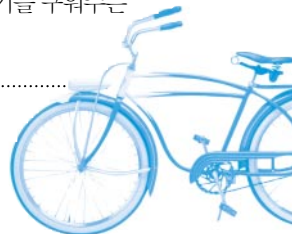


1 <천년학> 촬영지. 2 이청준 생가 전경. 3 여담이 문학산책로. 4 진목마을 동백 군락지. 5 한재공원 할미꽃 군락지.

객실 12만원부터. 24시간 찜질방 7000원.
☎ 061-862-2100 www.oksum.co.kr
장천재 머루랑다래탕 솔잎 넣은 약오리백숙·
촌달백숙 3만5000원, 산채비빔밥 6000원.
☎ 061-867-6709
돌비바다 장흥 읍내. 청국장과 생선조림의 아
침식사 가능. 생선조림(4인 기준) 2만5000
~3만원. ☎ 061-864-5335

아그네스식당 진송관광호텔 근처. 콩나물 해
장국 5000원. ☎ 061-863-0500
신록원관 장흥 대표 한정식 집. 한정식 1만
2000~2만원. ☎ 061-863-6622.
바다하우스 수문해수욕장 키조개 축제장 근
처. 키조개와 바지락회 요리 전문. 키조개(4인
기준) 3만원, 바지락회(4인 기준) 3만원.
☎ 061-862-1021

기타 정보
장흥군청
www.jangheung.go.kr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 061-860-0226





1

거문도

동백꽃 감상 후 백도 유람선에 몸을 싣다

프로그램 성격

- 대한민국 대표 섬인 백도 유람과 갈치회 등 맛 기행으로 구성한다.
- 기와집물랑, 신선대 등 해안 트레킹과 동백꽃길 트레킹.
- 동백꽃이 만발하는 1~3월이 좋다.

여행 코스 : 서울 - 경부고속도로 - 대전통영간고속도로 - 순천 IC - 17번 국도(여수 방면) - 여수 중앙동 여객터미널 - 거문도행 쾌속선(07:40, 13:00(하계 13:40) 편도 2시간 10분 소요) - **거문도** - **백도 유람선 관광** - **해안 트레킹** · **거문도 등대** - **영국군 묘지** - 여수행 쾌속선(09:40, 15:30(하계 16:00)) - 17번 국도 - 순천 IC - 대전통영간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서울 (*쾌속선 운항시간은 해양기상 상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연계 코스 : 오동도 - 진남관 - 돌산대교 - 향일암 등 여수 코스와 연계하여 1박 2일 여행을 구성할 수 있다. 084(순천) 코스와 연계하면 일정이 2박 3일로 늘어난다.

장소별 소개 · 특징

여수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넘게 달려온 **거문도**는 고도, 동도, 서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삼도'라

축제 · 행사 정보

여수 거북선대축제 매년 5월 경. 진남제, 풍어제 · 용왕제 등의 축제가 열린다.

☎ 여수시청 관광진흥과 061-690-2042

거문도백도은빛바다축제 8월 말~9월 초

☎ 여수시청 관광진흥과 061-690-2042

숙박 · 식당 정보

거문도 등대 15명이 묵을 수 있는 콘도형 숙소, 79㎡ 독채가 있다. 차가 갈 수 있는 목넘어에서 도보로 30분 소요. 여수지방 해양수산청(www.yeosu.momaf.go.kr)에서 매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061-666-0906

서도리 장촌타운 서도 포구의 조용한 숙소, 객실 8개, 총 40여 명 숙박 가능. 4인 이상이

면 해물바비큐 무료 제공. 1층은 식당으로 조식 가능. 백반 5000원, 홍합죽 · 소라죽 8000원, 갈치회 3만~5만원.

☎ 061-665-1329

하안집어관 고도에 위치.

☎ 061-666-8053

여수관광호텔 여수 공화동.

☎ 061-662-3131

고 불렀다. 세 섬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내해가 되어 수면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수심도 깊어 큰 배가 드나들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섬 전체가 낚시 포인트며, 트레킹 코스도 좋다. 러시아의 남해를 막는다는 구실로 영국이 무단점령한 ‘거문도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다.

➡ 거문도 쾌속선에서 내리면 바로 백도 유람선을 탈 수 있다. 국가명승지 제7호로 지정된 **백도**는 망망한 바다에 점점이 뿌려진 39개의 바위섬으로 구성된 무인도다. 등대가 세워진 상백도와 하백도로 나뉘는데, 8자로 돌면서 신비한 바위섬의 자태를 보여준다. 서방바위, 매바위, 병풍바위, 각시바위, 곰바위 등 천태만상의 기암괴석과 검푸른 바다, 한겨울에도 싱그런 초록빛을 띠는 상록수도 놓칠 수 없다. 왕복 2시간 10분.

➡ 거문도 여행의 숨은 모미는 **해안 트레킹**에 있다. 빨간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한 동백나무 숲길을 지나면 동도, 서도, 고도 등 거문도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 포인트가 나오고, 날씨가 좋을 때는 한라산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해안 트레킹의 하이라이트는 기암절벽 신선봉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다. 5시간 코스(덕촌리 - 불탄봉 - 역새 군락지 - 기와집물랑 - 신선바위 - 보로봉 - 전수월산 - 거문도 등대 관백정 - 수월산 동편), 2시간 코스(유림해수욕장 - 기와집물랑 - 신선바위 - 보로봉 - 수월산).

➡ **거문도 등대** 가는 길은 온통 동백꽃길이다. 1905년 불을 밝혔으니 100년의 역사를 훌쩍 넘었고, 지금은 퇴역장군이 되어 새 등대에게 소임을 양보하고 있다. 백도가 보인다고 하여 이름 붙은 관백정에 오르면 거문도, 삼부도뿐 아니라 날씨가 좋을 때는 수평선 위의 백도를 조망할 수 있다. 등대와 관사 사이에 콘도형 휴양소가 있으며, 휴양소에는 식기와 이부자리, 냉장고 등이 있다.

➡ 고종 22년(1885) 4월, 군함 6척과 수송선 2척을 이끌고 온 영국 해군이 거문도에 항구를 구축하면서 23개월간 무단 점령했다. 그때 영국 해군이 거문도에 머무르면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영국군 묘지**가 남아 있다. 화강암에 비문이 새겨져 있고 나무십자가가 서 있다. 묘지 위쪽 전망대에 오르면 거문도 앞바다와 수월산, 보루봉이 잡힐 듯하다.

거문도 갈치잡이는 6월 초부터 11월까지 이어진다. 최상품 대접을 받는 멧갈치는 가을에 잡힌다. ‘채낚기’라고 해서 낚시로 잡기 때문에 은갈치 몸에는 상처가 남지 않아 고가에 팔린다. 갈치회 외에 갈치구이, 갈치조림, 갈치창젓도 별미다.



1. 섬호교와 거문도항. 2. 유람선에서 바라본 백도. 3. 신선봉과 거문도 등대. 4. 영국군 묘지.

벨라지오관광호텔 여수 시내.

☎ 061-686-7976

삼도식당 고도에 위치. 갈치회.

☎ 061-665-5946

☎ 산호횡집 061-665-5802

한일관 남도 음식 명가. 해물 한정식 2만원.

☎ 061-654-0091

기타 정보

여수시청 www.yeosu.go.kr

여수시청 관광진흥과 ☎ 061-690-2036

삼산면사무소 ☎ 061-690-2607

여객선터미널 ☎ 061-663-0117

여객선(여수 - 거문도)

☎ (주)청해진해운 061-663-2824

☎ (주)온바다해운 061-665-7070

유람선(거문도 - 백도)

☎ (주)청해진해운 061-666-8215

☎ (주)바다고속해운 061-662-1144

남해안투어 ☎ 061-665-7788

www.namda.co.kr

광양

섬진강에
매화가 피었나니,
봄이 왔구나

프로그램 성격

· 남도의 땅 끝을 깊은 산중으로 만드는
백운산 자락의 청정 자연과 농촌 체험
여행.

·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봄. 도선
국사마을과 백운산 일대는 고로쇠나무
가 많고 동백과 매화, 청보리밭이 어우러지므로 봄철이 가장 아름답다.



1

여행 코스 : 남해고속도로 광양 IC - 옥룡면사무소(중흥사 방면으로 좌회전) - **중흥사** - 옥룡면사무소(백운산자연휴양림 방면으로 좌회전) - **도선국사마을** - **백운산자연휴양림** - 광양 읍내 방면 - **광양장도박물관** - 2번 국도(광양 시내 방면) - 58번 국지도(하동 방면) - 2번 국도(하동 방면) - 861번 지방도(구례 방면) - **매화마을 청매실농원** - 19번 국도(남해 방면) - 남해고속도로 하동 IC

연계 코스 : 059(하동), 082(구례), 084(순천), 096(여수) 코스와 연계하여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축제·행사 정보

광양매화문화축제 매년 3월 하순경.

www.maehwa.org

백운산고로쇠약수축제 매년 3월 초순.

숯불구이축제 매년 10월 경.

광양전어축제 매년 9월 중순.

☎ 광양시청 문화홍보담당관 061-797-2721

숙박·식당 정보

백운산자연휴양림 산악, 황토방, 종합숙박동 등 숙박 시설이 충분하다. 예약제로 운영. 숙박료 3만~10만원. ☎ 061-763-8615
bwmt.gwangyang.go.kr

알프스모텔 광양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모텔로 단체 여행객이 이용하기 좋다. 숙박료 2인 1실 3만~4만원. ☎ 061-793-7474

백운산밸리 콘도식 펜션. 작은 방과 단체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단독 복층 펜션이 있다. 50명 기준 100만원.

☎ 061-772-2282, 018-554-1173
www.baekwoonsan.com

대중식당 광양을 대표하는 음식 광양불고기. 그중에서도 3대째 내려오는 집이다. 불고기 1만3000원. ☎ 061-762-5670

🔍 장소별 소개 · 특징

➡ 신라시대에 창건한 **중흥사**(061-763-6655)는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소실된 후 1960년대에 중창된다. 이곳에 있던 국보 제103호 쌍사자석등은 일제강점기에 밀반출하려다 실패하고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광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올라가는 길이 산길이라 대형차는 아래에 주차해야 하며, 중흥사까지는 트레킹 하기에 좋은 코스다. 소요 시간 1시간 30분 내외.

➡ **도선국사마을**(061-762-3353, dosun.go2vil.org)은 도선국사가 말년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옥룡사지 인근에 위치한 체험 마을이다. 돌담길과 마을 풍경이 옛 모습 그대로다. 여러 체험 중 백운산 야생차밭에서 직접 차잎을 따 수제차를 만드는 체험(4월 중순~5월 중순)이 특별하다. 그 밖에도 다도 체험(4000원), 천연 염색(5000원부터), 전통 손두부 만들기(5000원), 우리밀로 빚은 수제비 만들기(4000원) 등이 가능. 마을 아래로 내려오면 고로쇠된장으로 유명한 나중연농장(061-762-3937)에서 장류 구매 가능.

➡ **백운산자연휴양림**(061-763-8615, bwmt.gwangyang.go.kr)은 삼나무와 편백 등 인공림과 천연림이 어우러진 곳이다. 편백나무 숲으로 난 황톳길을 따라 산책하는 코스는 이곳이 백미다. 입장료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소요 시간 1~2시간. 휴양림 입구에는 옥룡사지 동백림이 있다.

➡ 장도란 치장하다는 뜻의 ‘粧’자를 사용하는 한쪽 날이 세워진 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칼을 의미한다. **광양장도박물관**(061-762-4853, www.jangdo.org)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박용기 옹이 평생 만들어온 장도가 전시된 곳으로, 우리 칼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장승·부채 만들기, 칠보 공예도 가능(2시간 소요)하다. 입장료 어른 6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무료. 체험료 5000원(칠보 공예는 2만원). 관람 시간 09:30~18:30.

➡ 봄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매화가 눈이 온 듯 하얗게 뒤덮이는 **매화마을 청매실농원**(061-772-4066, www.maesil.co.kr)은 봄을 먼저 맞이하려는 상춘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다양한 매실 음식이 담겨 있는 2000개가 넘는 장독대도 장관이다. 드라마, 영화 등 촬영이 많이 진행된 곳으로, 여기저기 표지판이 있어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1 매화마을 청매실농원은 매화꽃과 섬진강 풍경이 어우러진다. 2 도선국사마을 천연 염색 체험장. 3 숲길 산책 코스로 더없이 좋은 중흥사. 4 광양장도박물관의 공예 체험장. 5 백운산자연휴양림의 맨발 산책로.

고향집 섬진강재첩국 재첩국 외에도 다양한 반찬이 푸짐하게 나오는 집. 저녁식사는 예약 필수. 재첩정식 6000원. ☎ 061-772-0305
비다횃집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망덕포구 일대는 가을철 전어로 유명. 재래식으로 구워내는 고소한 전어구이가 별미. 9월 초~11월 초가 제철. 전어구이 2만5000~3만5000원. ☎ 061-772-1717

📄 기타 정보

광양시청 ☎ 061-797-2114
 www.gwangyang.go.kr
광양시 관광안내소 ☎ 061-797-3363

